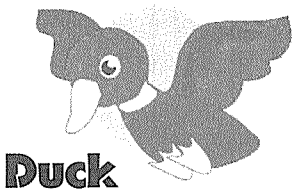
소식

협회 & 회원사



종란 50% 폐기 결정
제6차 이사회

오리가격안정을 위해 새끼생산량의 50%에 해당하는 부화종란이 11월과 12월 2달에 걸쳐 폐기된다.

본회는 지난 11월8일 제6차 이사회를 열어 오리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11월과 12월 2달에 걸쳐 전국 부화장에서 생산되는 부화종란 50%를 폐기키로 의결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계열유통업체, 부화장, 사육농가로 구성된 종란폐기 확인을 위한 위원을 구성하고 전남지역의 부화장들은 중부권지역에서 중부권지역의 부화장은 호남권지역 위원들이 크로스로 확인절차를 거쳐 부화기내 종란을 확인 폐기키로 했다.

또한 종란폐기에 따른 부화장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생산되는 새끼오리의 기준가격은 7백원으로 조정하여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전 부화업계의 참여와 폐기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폐기에 동참하지 않는 부화장들은 수입 종 오리의 PS 배정을 유보하고 이행보증금은 내년 3월에 반환하며 계열업체는 폐기에 동참하지 않는 부화장의 새끼입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의 경우는 제명키로 하는 강력한 대책을 수립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부화업계에서 이미 협의하여 통과된 종오리 검정수수료 50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계열유통분과에서 추대한 박영진 계열협의체회장을 부회장으로 승인했다.

오리고기, 큰 반향 불러
제9회 농업인의 날 부대행사

우리농업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제9회 농업인의 날 부대행사에서 오리고기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본회는 지난 11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후정에서 개최된 농업인의 날 부대행상에 참여하여 오리고기 무료시식회를 겸한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했다.

『웰빙바람 난 오리』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 행사에서 본회는 오리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과정을 알리기 위한 판촉물 전시 및 토종오리, 페킨종 오리, 새끼오리 사육과정을 전시하고 오리양념불고기, 오리신선슬라이스 정육, 오리훈제, 오향오리등을 무료시식과 함께 할인판매하고 가정, 단체급식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오리고기 요리책을 나눠지며 홍보행사를 실시했다.

오리고기를 시식하고 할인가격으로 가정에서 소비한 이 지역 소비자들은 오리고기 맛이 상당히 좋다. 다시 사먹으려면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가 등을 물어보며 큰 관심을 보여 가정소비로의 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한편 본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축산물브랜드전 행사에 참가하여 오리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소비확대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검정수수료, PS 종오리 물량 협의
—제5차 전국부화장회의

종오리 개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PS 도입물량이 11월15일 이후 최종 결정되고 검정에 따른 수수료가 500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오리가격안정을 위한 종란감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키로 의결됐다.

본회는 지난 11월3일 제5차 전국부화장 회의를 열

어 종오리 수입물량 조정은 11월15일까지 이행보증금 납부일을 연장하여 최종 마감키로 하고 검정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검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검정수수당 500원을 납부키로 협의했다.

또한 가격안정을 위한 종란폐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이날 부화장 회의는 의결했다.

대만오리협회와 국제적 교류 협력키로
10월28일 대만오리협회 관계자 내방시 협의

개방화시대에 국내 오리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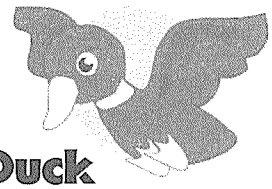
본회는 지난 10월28일 대만 양압협회 회장 및 관계자, 학계교수 및 연구기관 관계자, 가공업체 관계자등 31명의 내방을 받고 대만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등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협의했다.

이날 본회 김규중 회장은 내방인사에서 한국오리협회를 방문해주데 감사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 오리 산업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자매결연 등 협력방안을 통한오리 산업의 상호 발전을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만 양압협회 라진송회장은 환대에 감사한다며 저희 역시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등을 통한 협력방안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3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내방한 대만 양압협회 관계자들은 축산기술연구소를 방문하여 국내 축산연구에 대한 기술현황 및 오리가공장, 사육농장등을 돌아보았고 협회에서는 국내 오리산업 전반에 걸친 상황 설명을 듣고 양국의 오리산업을 비교하는 중요한 자리가 였다.

한편 본회 김규중 회장은 환송인사에서 다음번에 대만을 방문하여 오리산업의 발전상황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종오리 PS수입 순조롭게 진행
7개부화장에서 4만7백70수 도입

종오리 개량을 위한 PS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종오리 수입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하여 추진키로 한 종오리 수입이 올 연말까지 40,770수가 확정되어 수입된다.

지난 11월까지 수입된 종오리는 업체별로 주원산오리 16,875수, 덕신부화장 6,750수, 성호부화장 3,105수, 무주부화장 1,215수, 아람영농조합 5,130수, 황아부화장 3,915수, 능골부화장 1,350수 등 총 38,340수가 수입됐다.

한편 종오리 PS 도입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는 지난 8월말 12개업체에서 11월 2일까지 총 18개업체로 늘어났으며 신청한 물량은 18만수에 달해 수입물량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종오리개량을 개량을 위한 기반조성
순차적으로 진행

종오리 개량을 위한 PS 종오리 도입 및 검정을 위한 검정기준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회는 종오리 개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 사업이 종오리 수입창구가 협회로 일원화되었고 검정위원회 구성 및 검정기준등이 마련되면서 종오리 개량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7월 종오리 개량을 위해 구성된 종오리 검정위원은 질병분야에서 김선중(서울대 수의과대학교수), 김재홍(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장), 유전육종분야에서 정선부(전 축산기술연구소 제주지원장), 최

철환(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 연구사), 한성욱(충남대 명예교수), 사육분야에서 이병선(본회 부화분과부회장), 양성현(덕신영농조합대표), 김규중회장 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

또 종오리 검정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제1차 검정위원회를 열어 종오리의 검정을 일반검정과 능력검정으로 나눠 검정대상 및 방법등을 정하고 종오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도입되는 원종오리, 및 종오리 도입시 본회에서 실시하는 종오리 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종오리의 유효기간은 18개월부터 78주령까지로 정하고 경제능력검정은 산란오리 및 육용오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공표토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됐다.

이를 기준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혈통 및 계통을 증명할 수 있 종오리를 보유하고 있는 부화장2개소에서 검정을 신청하는 등 검정업무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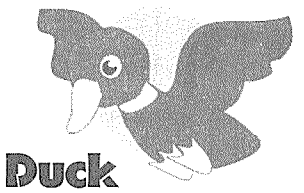
종오리 검정기준 등 승인
제5차 이사회

종오리 검정위원 및 종오리 검정기준이 승인되고 유통분과위원회가 계열유통분과위원회로 명칭이 개정됐다.

또 종오리 수급조절을 위한 수급조절위원이 선임되고 사육분과부회장에 황문주씨가 선임됐다.

본회는 지난 9월8일 제5차 이사회를 열어 7월에 선임된 종오리 검정위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검정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검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종오리 검정기준을 승인하는 한편 종오리 수급조절을 위한 위원장에 김규중회장을, 위원으로는 이병선(부화분과부회장), 양성현(덕신부화장대표), 손윤권(성호농장대표), 김기용(쌍둥이부화장대표), 이우진(주원산오리대표)위원을 종오리 수급조절위원으로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유통분과를 계열유통분과로 명칭을 개정키로 의결하고 부회장은 계열협의체에서 추대하여 선임키로 했다.

사육분과부회장의 사태로 공석이된 사육분과 부회장에는 황문주 감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여 겸직토록 승인하는 한편 종오리 수입창구를 협회로 일원화는 것을 재 승인하고 종오리 검정에 의한 종축업 등록제 시행을 재 의결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종오리 쿼터제를 시행키로 재 의결했다.

도축장 HACCP 인증
모란식품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소재한 모란식품(대표 김만섭)이 지난해 12월 오리전문도축장으로 준공된지 10개월만에 HACCP 인증을 받아 오리고기의 위생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란식품에 따르면 지난 9월22일 충청북도로부터 HACCP 인증 도축장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만섭 모란식품 대표는 이번 HACCP 인증을 통해 보다 위생적인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운영을 보다 철저히 하여 오리고기의 소비자 신뢰를 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로써 오리도축장중 위해요소 중점관리를 통해 위생적인 오리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은 화인코리아 도축장과 모란식품도축장 2개소로 늘어나게 되었고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오리고기 공급을 통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모란식품은 10톤의 오리고기를 오는 11월29일 일본으로 수출한다.

한국오리영농조합법인으로 업무 분장
코리아 덕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소재한 코리아 덕(주)(대표 양태식)이 육가공 및 오리사냥 체인사업과 위탁사육, 부화업을 관장하는 한국오리영농조합법인으로 업무를 분장했다.

11월6일 코리아덕(주)에 따르면 종전 코리아덕(주)는 육가공사업과 체인사업체인 오리사냥의 업무를 관장하고 한국오리영농조합법인은 위탁사육 및 초생추 부화사업을 관장토록 업무를 분장했다고 밝혔다.

훈제 슬라이스 가공육 신제품 출시
주원산오리

충북 진천에 소재한 (주) 주원산오리가 종전의 훈제 가공육을 슬라이스 형태로 진공 포장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한 주원산오리 훈제 슬라이스 가공육은 종전의 발골 형태의 훈제품을 슬라이스화하여 일자형태로 진공포장하므로서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훈제요리를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가공된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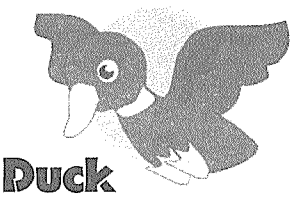
주원산오리 영업부 관계자는 이 제품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오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주원산오리는 3년전에 신청했던 도축장신축 허가서를 기존 도축장을 보완하여 HACCP 인증을 통해 가동토록하고 신규 도축장 허가는 취소했다고 밝혔다.

일본햄에 년간 9백톤 수출계약
화인코리아

화인코리아판매주식회사(대표 최선)가 내년 9월까지 9백톤의 오리고기를 수출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월15일 1차로 9톤의 오리고기를 수출했다.

화인코리아판매주식회사의 이번 오리고기 수출계약은 일본햄과 년간 계약으로 금액상으로는 6백20만 불어치에 해당된다.



수출부위는 주로 냉동 가슴살과 다리살의 부분육 형태로 수출되며 잔여육의 경우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화인은 내다보고 있다.

수출물량은 11월과 12월에는 오리고기 생산 및 가공기술의 숙련도 등으로 많은 양이 수출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나 1월이후 물량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화인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화인은 수출작업이후 자체 생산된 오리의 물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일본 수출이 국내 산지오리가격안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